

衣服의 距離感이 對人知覺에 미치는 影響

박 성 순 · 이 경 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The Effect of Feeling Distance on Clothes in the Person Perception

Seong Soon Park and Kyong Hee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1993. 8. 4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eeling distance of clothes in the person perception.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 1) to investigate whether the compositions of clothes affect the rate of detouring ; 2) to investigate whether the gender compositions of dyads affect the rate of detouring ; 3) to investigate whether the distance between members of dyads affect the rate of detouring ; 4) to investigate whether the distance between members of dyads affect the rate of detouring. ; 5)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among the compositions of clothes, the gender compositions, and the distance between members of dyads in the person perception.

For this study, two male and two female undergraduates were selected and wore business suit or casual wear as given by the researcher. The distance between members of dyads ranged from 100cm to 170cm with an increment unit of 10cm. The data from our observation were analysed by χ^2 -test, ANOVA, and MCA.

The major findings were :

1) In male/male dyad, distance perception from clothes were affected by the compositions of clothes at all distance. In male/female dyad, when the distance between members of dyad is short, distance perception from clothes were affected by the compositions of clothes modes. 2) When two members of dyad wear business suit, distance perception from clothes were affected by the gender compositions of dyads. 3) Distance perception from clothes were affected by distance factors at all the gender compositions of dyads. 4) In the person perception, the most important clue was the distance between members of dyads. The physical distance, which was formed by clothes, was between 130cm and 140cm.

I. 序 論

최근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어오고 있는데, 고정된 자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영역 외에 개인사이 거리의 중요성의 개념이 전개되어 왔다. 개인적 거리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인체를 둘러싸는 영역이다.(Sommer, 1991 : 37) 개인적 거리는 사람의 감정적 안녕에 있어서 위험을 지각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환경지역에서 일어나는 행동반응으로 이론화되었으며(Dosey & Meisels, 1969) Hall과 Little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공간적 행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홍청청, 1985)

개인과 접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크기는 타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근접의 정도를 말하고 사회적 규범에 의하여 규정된다(Sommer, 1991 : 37, Milgram & Toch, 1969). 의복은 지각자 혹은 관찰자에게 착용자에 관한 단서를 제공해 주며 개인의 외모와 의복의 지위단서는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형태로 존중을 나타내는 행동과 관계가 있다. Bousaka & Beatty(1978)의 연구에서는 의복에 의해 제공된 사회적 역할의 지위에 대한 단서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의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Cheyne & Efran(1972)은 통행인들이 접단의 성별조합에 따라 나타내는 반응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외에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국내에서는 개인공간에 대한 연구가 신문학, 교육학, 심리학, 가정관리학의 분야에서 이루어져 있으나 의복과 접합된 연구는 거의 없다. 오늘날 대인거리형성에 있어서 의복이 중요한 매개체라고 볼 때 의복거리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리를 둘러싸는 공간의 사용에 있어서 의복의 유형과 성에 대한 사람들의 추면을 이해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추면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인거리 지각에 있어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의복의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산출하여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인지각에 있어서 의복유형 조합, 성별조합과 두 사람 간의 거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對人距離에 관한 文獻 考察

지각이란 인간이 환경속에서 주어지는 자극들을 받아들여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말한다(Hilgard, At-

kinson & Atkinson, 1979). 대인지각이란 일상생활속에 접하는 타인의 심리적 소질에 관한 모든 것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정양은, 1982 : 177) 타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수원, 1988 : 313). 대인거리지각은 상호작용하는 사람사이에 형성되는 물리적 거리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Hall(1984)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거리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 연구하여 왔고, 그의 저서 『숨겨진 차원』에서 인간의 사회적 개인적 공간을 다루고 있으며 인간이 그 공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고 이론화하여 문화를 규명하기 위해 근접학(Proxemics)이라는 어휘를 만들어 냈다.

Hall에 이어 Little 등 많은 학자들은 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공간적 행위를 연구해 왔는데 특히 개인적 거리를 주요 관심으로 하였다. Hall(1984 : 173~186)은 대부분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공간적 대인거리를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공적 거리 등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간의 관계는 얼마만큼의 거리로 대화하는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특성도 한 요인이다. 신체적 외모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 외모 역시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Berscheid & Walster, 1974)

Powell & Dabbs(1976)와 Dabbs & Stokes(1975)는 매력있는 사람은 잠깐 지나치는 인도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사회접촉에서 더 많은 공간을 소유한다고 보고하였다. Dabbs & Stokes(1975)는 사회적 힘의 개념 즉, 공간적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능력을 설명하고 더 강력하다고 지각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공간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Young & Guile(1987)은 높은 지위의 의복(사업가, 목사의 의복)을 입은 침범자에 비해 낮은 지위의 의복(대학생의 의복)을 입은 침범자들에 의해 침범당했을 때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빨리 자리를 떠나간다고 하였다.

Fortenberry, Maclean, Morris & O'Connell(1978)은 의복의 유형이 행동을 이끌어 가는 단서로서 제공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화하는 사람사이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사람은 낮은 지위로 보이는 의복의 유형보다 높은 지위로 보이는 의복의 유형일 때 보다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Cheyne & Efran(1972 : Efran & Cheyne, 1973)의 연구에서 실험자 두 사람이 Hall의 48인치의 개인적 거리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 사이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사람이 개인적 거리를 벗어나 서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들을 사이를 자주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통행인들은 남자/남자 쌍이나 여자/여자 쌍보다 남자/여자 쌍에서 둘러가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자/여자 쌍보다는 남자/남자 쌍에서 더욱 둘러가는 경향을 나타냈다.

Lindskold & Wayner(1981)은 통행인들이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기 보다 네 사람 사이의 집단을 통과하는 것을 꺼린다고 보고하였다. Knowles(1973)는 집단의 크기와 그 구성원들의 지위가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낮은 지위 집단보다 높은 지위 집단에서 통과하는 사람이 더욱 적게 나타났고, 2명의 집단보다 4명의 집단에서 통과하는 사람이 더욱 적게 나타나 집단의 크기와 그 구성원들의 지위가 대인거리 지각에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다.

III. 實證的 研究

1. 研究問題

의복이 대인거리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사람간에 거리를 설정하고 두 사람의 주위로 둘러가는 비통과율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1 : 의복유형의 조합이 두 사람사이의 비통과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2 : 성별조합이 두 사람 사이의 비통과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3 : 두 사람간의 거리가 비통과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4 : 의복유형의 조합, 성별조합과 두 사람간의 거리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다.

2. 用語 定義

1) 대인거리지각 : 상호작용하는 사람사이에 형성되는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실험모델에 대한 거리감을 지각해서 두모델의 사이을 통과할것인지 돌아갈것인지지를 결정하게 된다.

2) 의복의 거리감 : 피험자들이 모델이 착용한 의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갈 것인지, 멀 것인지를 느끼게 하는 의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리감각을 말한다.

3) 의복거리지각 : 의복의 거리감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비통과율(%) = $(비통과량/전체통행량) \times 100$. 즉, 비통과율이 높을수록 의복의 거리감을 많이 지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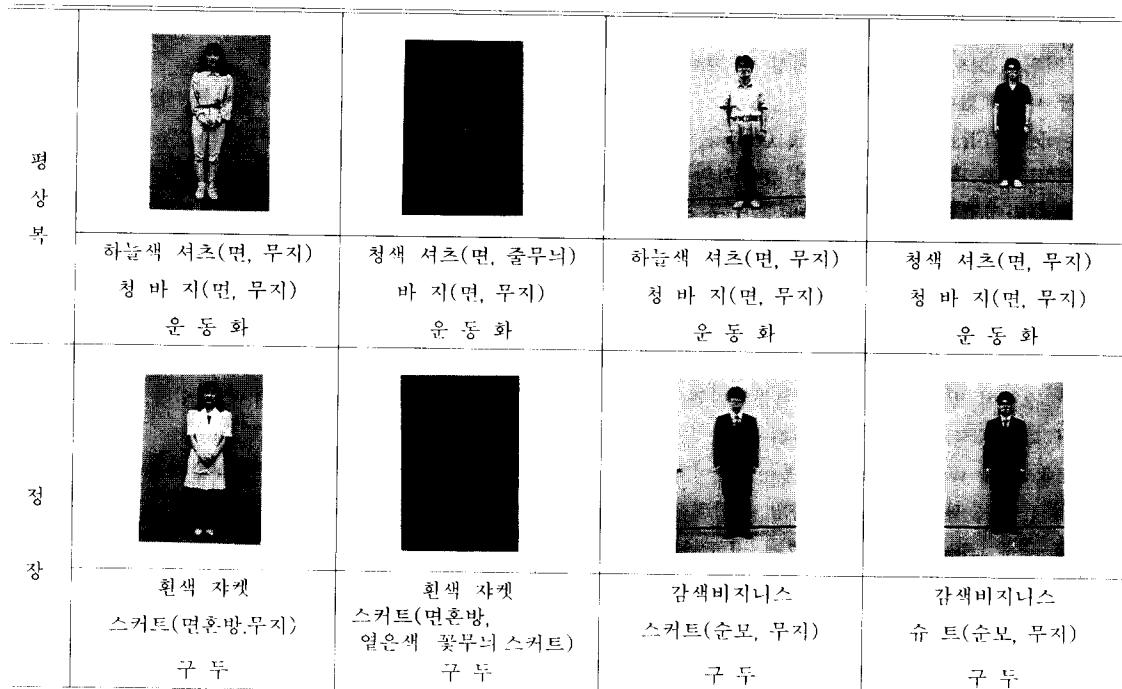
3. 實驗節次 및 方法

1) 모델 및 衣服選定

모델은 대학생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선정하였다. 의복은 대학생의 옷차림 중에서 정장차림(비지니스슈트)과 평상복 차림(케쥬얼 웨어)으로 선정하였다. 1992년 5월 11일에서 5월 22일까지 부산대학교 139명의 대학생들(남자 73명, 여자 66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장차림과 평상복 차림에 대한 의복품목과 소재, 색상, 무늬를 자유응답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정장차림과 평상복 차림을 모델에게 착용시켜 그 전신사진을 의류학전공자 10명에게 제시하여 의복선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선정된 의복은 [그림 1]과 같다.

2) 距離選定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eyne & Efran(1972), Efran & Cheyne(1973), Knowles(1973), Bousaka & Beatty(1978), Fortenberry, Maclean, Morris & O'Connell(1978) 등은 Hall의 개인적 거리(42inch), 사회적 거리(54inch)를 기준으로 하여 대인거리지각을 연구하였는데 Hall의 거리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는 거리기준이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2년 6월 22일에서 25일까지 쇼핑센타(부산 온천지점 스파쇼핑)앞에서의 예비실험을 통하여 100cm에서 170cm까지를 10cm단위로 나누어 8단계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선정된 의복과 모델

3) 實驗場

본 실험에서는 적당한 공간과 통행량이 필요하므로 여러 장소를 탐색한 결과 쇼핑센타의 입구근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그곳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림 2]는 실험장을 묘사한 것이다. 두명의 모델은 출입구로 들어가는 통행인에 대해 신체의 측면을 보여 주도록 되어있고 마주보고 자연스럽게 서 있으며 대화는 하지 않는다.

4) 被驗者 選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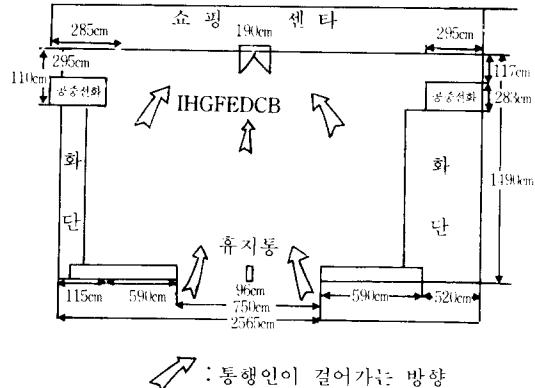
쇼핑센타의 출입구 내부로 곧바로 들어가는 20세 이 상의 성인남녀 100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피험자는 남자는 11%, 여자는 89%이었다.

5) 實驗設計

본 실험은 의복유형의 조합(3)×성별조합(3)×거리단계(8)의 3원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예비실험은 1992년 6월 22일에서 6월 25일 까지 이루어졌다. 본 실험기간은 8월 17일에서 9월 4일 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안 행하였고 실험은 11시에서 16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6) 實驗觀察

한 장면당 광활시간은 통행량이 100여명 정도를 기



A~B : 100cm A~C : 110cm A~D : 120cm A~E : 130cm
A~F : 140cm A~G : 150cm A~H : 160cm A~I : 170cm

〈그림 2〉 실험장

준으로 하여 대략 20~25분 정도 걸렸다. 모델이 서 있는 위치에서 6m정도 떨어져서 무비카메라로 모든 실험과정을 녹화하였으며 녹화한 비디오를 보면서 통행량을 조사하였다.(표 1).

〈표 1〉 실험설계

거리	의복유형	성별				남자/남자				여자/여자				남자/여자			
		C/C	C/B	B/C	B/B	C/C	C/B	B/C	B/B	C/C	C/B	B/C	B/B	C/C	C/B	B/C	B/B
100cm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110cm		S13	S14	S15	S16	S17	S18	S19	S20	S21	S22	S23	S24				
120cm		S25	S26	S27	S28	S29	S30	S31	S32	S33	S34	S35	S36				
130cm		S37	S38	S39	S40	S41	S42	S43	S44	S45	S46	S47	S48				
140cm		S49	S50	S51	S52	S53	S54	S55	S56	S57	S58	S59	S60				
150cm		S61	S62	S63	S64	S65	S66	S67	S68	S69	S70	S71	S72				
160cm		S73	S74	S75	S76	S77	S78	S79	S80	S81	S82	S83	S84				
170cm		S85	S86	S87	S88	S89	S90	S91	S92	S93	S94	S95	S96				

C : Casual Wear B : Business Wear S : Scene

1~96 : 각 실험장면의 번호.

S1 : 남자/남자 쌍이 모두 Casual Wear를 입은 경우

S2 : 남자/남자 쌍이 한사람은 Casual Wear를 입고 한사람은 Business Wear를 입은 경우

〈표 2〉 의복유형의 조합에 따른 비통과율의 χ^2 - 검증 (남자/남자)

(단위 : 명(%))

거리 의복 반응	100cm				110cm				120cm				130cm			
	C/C	C/B	B/B	계												
동파	23(21)	37(17)	5(5)	65(15)	19(19)	54(27)	14(13)	87(19)	24(24)	56(28)	11(11)	91(21)	32(24)	56(28)	18(17)	106(25)
비동파	84(79)	181(83)	101(95)	366(85)	81(81)	146(73)	90(87)	317(81)	76(76)	144(72)	89(89)	309(79)	81(76)	144(72)	86(83)	311(75)
계	107(100)	218(100)	106(100)	431(100)	100(100)	200(100)	104(100)	404(100)	100(100)	200(100)	100(100)	400(100)	113(100)	200(100)	104(100)	417(100)
χ^2	11.3***				6.25*				7.15*				7.01*			
거리 의복 반응	140cm				150cm				160cm				170cm			
	C/C	C/B	B/B	계												
동파	54(53)	62(31)	19(18)	135(34)	45(45)	88(44)	28(25)	161(39)	53(53)	92(46)	20(19)	165(39)	59(59)	110(55)	38(38)	207(51)
비동파	48(47)	138(69)	85(82)	271(66)	55(55)	112(56)	82(75)	249(61)	47(47)	108(54)	86(81)	241(61)	41(41)	90(45)	62(62)	193(49)
계	102(100)	200(100)	104(100)	406(100)	100(100)	200(100)	110(100)	410(100)	100(100)	200(100)	106(100)	406(100)	100(100)	200(100)	100(100)	400(100)
χ^2	17.20***				10.78***				27.02***				9.95**			

*p < .05 **p < .01 ***p < .001

3. 資料分析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은 SPSS PC package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χ^2 -검증, 3원변량 분석, 다중분류분석을 실시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1. 衣服類形의 組合에 따른 對人距離知覺

의복유형에 따른 대인거리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두 사람간의 거리를 설정하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통행인들의 비통과율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 의복 유형의 조합에 따른 비통과율의 χ^2 - 검증(여자/여자)

(단위: 명(%))

거리 의복 반응	100cm				110cm				120cm				130cm			
	C/C	C/B	B/B	계												
통과	18(17)	36(15)	28(23)	82(18)	32(29)	48(24)	27(24)	107(26)	41(36)	122(29)	25(25)	188(39)	34(34)	80(40)	42(39)	156(38)
비통과	85(83)	201(85)	92(77)	378(82)	79(71)	152(76)	86(76)	317(74)	74(64)	98(71)	75(75)	247(61)	65(66)	120(60)	67(61)	252(72)
계	103(100)	237(100)	120(100)	460(100)	111(100)	200(100)	113(100)	424(100)	115(100)	220(100)	100(100)	435(100)	99(100)	200(100)	109(100)	408(100)
χ^2	2.31				0.87				2.96				0.88			
거리 의복 반응	140cm				150cm				160cm				170cm			
	C/C	C/B	B/B	계												
통과	40(39)	72(36)	32(32)	144(35)	40(36)	86(43)	51(50)	177(43)	56(54)	86(43)	49(46)	191(48)	73(60)	110(55)	62(61)	245(59)
비통과	63(61)	128(64)	69(68)	260(65)	70(64)	114(57)	51(50)	235(57)	47(46)	114(57)	57(54)	218(52)	48(40)	90(45)	40(39)	178(41)
계	103(100)	200(100)	101(100)	404(100)	110(100)	200(100)	102(100)	412(100)	103(100)	200(100)	106(100)	409(100)	121(100)	200(100)	102(100)	423(100)
χ^2	1.07				2.31				2.60				1.01			

〈표 4〉 의복 유형의 조합에 따른 비통과율의 χ^2 - 검증(남자/여자)

(단위: 명(%))

거리 의복 반응	100cm				110cm				120cm				130cm			
	C/C	C/B	B/B	계												
통과	28(24)	25(12)	4(5)	57(14)	23(20)	38(19)	9(8)	70(16)	37(33)	40(20)	11(10)	88(21)	38(31)	64(32)	34(31)	136(32)
비통과	91(76)	183(88)	80(95)	354(86)	93(80)	162(81)	102(92)	357(84)	76(67)	160(80)	99(90)	335(79)	75(69)	136(68)	76(69)	287(68)
계	119(100)	208(100)	84(100)	411(100)	116(100)	200(100)	111(100)	427(100)	113(100)	200(100)	110(100)	423(100)	113(100)	200(100)	110(100)	423(100)
χ^2	15.65***				6.71*				10.00***				0.18			
거리 의복 반응	140cm				150cm				160cm				170cm			
	C/C	C/B	B/B	계												
통과	34(28)	64(32)	51(48)	149(35)	42(35)	82(41)	43(43)	168(40)	71(47)	96(48)	51(51)	218(48)	67(58)	86(43)	58(46)	211(48)
비통과	86(72)	136(68)	56(52)	278(65)	78(65)	118(59)	57(57)	253(60)	80(53)	104(52)	49(49)	233(52)	49(42)	114(57)	68(54)	231(52)
계	120(100)	200(100)	107(100)	427(100)	120(100)	200(100)	100(100)	420(100)	151(100)	200(100)	100(100)	451(100)	116(100)	200(100)	126(100)	442(100)
χ^2	9.72**				0.61				0.35				5.04			

*p < .05 **p < .01 ***p < .001

다음과 같다.

(표 2)는 남자/남자쌍에서 의복유형에 따른 비통과율의 χ^2 -검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거리에서 의복유형의 조합에 따른 비통과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의복유형의 조합이 남자/남자쌍의 비통과율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B/B는 모든 거리에서 비통과율이 높게 나타나 C/C와 C/B보다 통행인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의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의복유형의 조합에서 130cm이하일 때 통행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Bousaka & Beatty(1978)의 실험에서 두 사람이

48인치(107cm) 떨어져 있을 때 보다 54인치(137cm) 떨어져 있을 때 통과율이 많아진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으며 또한 54인치(137cm)에서 서 있는 성직자의 의복을 입은 실험모델이 학생 쌍보다 통행인들을 더욱 우회시킨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Fortenberry, maclean, Morris & O'Connell(1978)의 실험에서 통행인들은 casual한 의복을 입은 두 사람에게 보다 formal한 의복을 입은 두 사람에게 더욱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의 여자/여자쌍에서는 모든 거리에서 의복유형의 조합에 따른 비통과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의복유형의 조합이 여자/여자 쌍의 비통과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40cm까지는 모든 의복유형의 조합에서 비통과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150cm부터는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170cm에서는 모든 의복유형에서 비통과율이 낮게 나타나 두 사람간의 거리가 140cm이하일 때 통행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의 남자/여자쌍에서는 100cm, 110cm, 120cm, 140cm에서 의복유형의 조합에 따른 비통과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자/여자쌍에서 의복유형의 조합이 의복거리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는 100cm, 110cm, 120cm, 140cm임을 알 수 있다.

150cm까지는 모든 의복유형의 조합에서 비통과율이 높게 나타나서 두 사람간의 거리가 150cm이하일 때가 통행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性別組合에 따른 對人距離知覺

성별조합에 따른 대인거리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두 사람간의 거리를 설정하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통행인들의 비통과율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는 C/C에서 성별의 조합에 따른 비통과율의 χ^2 -검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40cm에서만 성별의 조합에 따라 비통과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C/C

에서는 성별의 조합이 비통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30cm까지는 비통과율이 높게 나타나 C/C를 입은 두 사람간의 거리가 130cm 이하일 때 통행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남자/여자쌍이 비통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남자/여자쌍이 통행인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의 C/B에서는 100cm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리에서 성별조합에 따른 비통과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성별조합이 C/B에서의 비통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60cm까지 비통과율이 높게 나타난 C/B를 입은 두 사람간의 거리가 160cm이하일 때 통행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남자/여자쌍은 모든 거리에서 비통과율이 높게 나타나 남자/여자쌍이 통행인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의 B/B에서는 모든 거리에서 성별조합에 따른 비통과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성별의 조합이 B/B에서의 비통과율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140cm까지는 모든 성별조합에서 비통과율이 높게 나타나 140cm이하일 때 통행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남자/남자쌍은 170cm까지 비통과율이 높게 나타나 통행인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성별조합에 따른 비통과율의 χ^2 - 검증 (C/C)

(단위: 명(%))

거리 의복 반응	100cm				110cm				120cm				130cm			
	남/남	여/여	남/여	계												
통과	23(21)	18(17)	29(24)	70(21)	19(19)	32(29)	23(20)	74(27)	24(24)	41(36)	37(33)	102(31)	32(28)	34(34)	38(31)	104(32)
비통과	84(79)	85(83)	90(76)	259(79)	81(81)	79(71)	93(80)	253(71)	76(76)	74(64)	76(67)	226(69)	81(72)	65(66)	75(69)	221(68)
계	107(100)	103(100)	119(100)	329(100)	100(100)	111(100)	116(100)	327(100)	100(100)	115(100)	113(100)	328(100)	113(100)	99(100)	113(100)	325(100)
χ^2	150				3.46				3.65				3.67			
거리 의복 반응	140cm				150cm				160cm				170cm			
	남/남	여/여	남/여	계												
통과	54(53)	40(39)	34(28)	128(39)	45(45)	40(36)	36(35)	121(39)	53(53)	56(54)	71(47)	180(51)	59(59)	73(60)	67(58)	199(59)
비통과	48(47)	63(61)	86(72)	197(61)	55(55)	70(64)	66(65)	191(61)	47(47)	47(46)	80(53)	174(49)	41(41)	48(40)	49(42)	138(41)
계	102(100)	103(100)	120(100)	325(100)	100(100)	110(100)	102(100)	312(100)	100(100)	103(100)	151(100)	354(100)	100(100)	121(100)	116(100)	337(100)
χ^2	13.08				2.56				1.15				0.08			

3. 距離變化에 따른 對人距離知覺

거리변화에 따른 대인거리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두 사람간의 거리를 설정하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통행인들의 비통과율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은 남자/남자쌍의 거리변화에 따른 비통과율의 χ^2 -검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의복에서 거리변화에 따른 비통과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거리변화가 남자/남자쌍의 비통과율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모든 거리에서 비통과율이 높게 나타나 B/B가 통행인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의복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자/남자쌍에서 C/C의 의복거리는 130cm이하, C/B의 의복거리는 160cm 이하, B/B의 의복거리는 170cm이상인것으로 나타나 두 사람 모두 Business Wear를 착용했을때 피험자가 의복거리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의 여자/여자쌍에서는 모든 의복에서 거리변화에 따른 비통과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표 6〉 성별조합에 따른 비통과율의 χ^2 -검증 (C/B)

(단위: 명(%))

거리 의복 반응	100cm				110cm				120cm				130cm			
	남/남	여/여	남/여	계												
통과	37(17)	36(15)	25(12)	98(15)	54(27)	42(24)	38(19)	134(23)	56(28)	61(29)	40(20)	157(27)	56(28)	80(40)	64(32)	200(33)
비통과	181(83)	201(85)	183(88)	565(85)	146(73)	152(76)	162(81)	460(77)	142(72)	149(71)	160(80)	451(73)	144(72)	120(60)	136(68)	400(67)
계	218(100)	237(100)	208(100)	663(100)	200(100)	194(100)	200(100)	594(100)	198(100)	210(100)	200(100)	608(100)	200(100)	200(100)	200(100)	600(100)
χ^2	18.17***				1.83				2.55				3.36			
거리 의복 반응	140cm				150cm				160cm				170cm			
	남/남	여/여	남/여	계												
통과	62(31)	72(36)	64(32)	198(33)	88(44)	86(43)	82(41)	256(43)	92(46)	86(43)	96(48)	274(46)	110(55)	110(55)	86(43)	306(51)
비통과	138(69)	128(64)	136(68)	402(67)	112(56)	114(57)	118(59)	344(57)	108(54)	114(57)	104(52)	326(54)	90(45)	90(45)	114(57)	294(49)
계	200(100)	200(100)	200(100)	600(100)	200(100)	200(100)	200(100)	600(100)	200(100)	200(100)	200(100)	600(100)	200(100)	200(100)	200(100)	600(100)
χ^2	0.63				0.19				0.51				3.84			

***p < .001

〈표 7〉 성별조합에 따른 비통과율의 χ^2 -검증 (B/B)

(단위: 명(%))

거리 의복 반응	100cm				110cm				120cm				130cm			
	남/남	여/여	남/여	계												
통과	5(5)	28(23)	4(5)	37(12)	13(13)	27(24)	9(8)	49(17)	13(13)	22(22)	18(10)	51(18)	18(17)	42(39)	34(31)	94(29)
비통과	101(95)	92(77)	80(95)	273(88)	91(87)	86(76)	102(92)	279(83)	87(87)	78(78)	70(90)	237(82)	86(83)	67(61)	76(69)	229(71)
계	106(100)	120(100)	84(100)	310(100)	104(100)	113(100)	111(100)	328(100)	100(100)	100(100)	88(100)	288(100)	104(100)	109(100)	110(100)	323(100)
χ^2	22.07***				10.51**				9.38**				12.04**			
거리 의복 반응	140cm				150cm				160cm				170cm			
	남/남	여/여	남/여	계												
통과	19(18)	32(32)	51(48)	102(32)	28(25)	51(50)	43(43)	120(38)	20(19)	49(46)	51(51)	120(38)	38(38)	62(61)	58(46)	158(48)
비통과	85(82)	69(68)	56(52)	210(68)	82(75)	51(50)	57(57)	192(62)	86(81)	57(54)	49(49)	192(62)	62(62)	40(39)	68(54)	170(52)
계	104(100)	101(100)	107(100)	312(100)	110(100)	102(100)	100(100)	312(100)	106(100)	106(100)	100(100)	312(100)	100(100)	102(100)	126(100)	328(100)
χ^2	20.48***				13.94***				24.99***				10.92**			

***p < .01 ***p < .001

〈표 8〉 거리변화에 따른 비통과율의 χ^2 -검증(남자/남자)

〔단위: 명(%)〕

의복 반응 거리	C/C								계
	100cm	110cm	120cm	130cm	140cm	150cm	160cm	170cm	
통과	23(21)	19(19)	24(24)	32(28)	54(53)	45(45)	53(45)	59(53)	309(38)
비통과	84(79)	81(81)	76(76)	81(72)	48(47)	55(55)	47(47)	41(41)	513(62)
계	107(100)	100(100)	100(100)	113(100)	102(100)	100(100)	100(100)	100(100)	822(100)
χ^2					40.95***				
의복 반응 거리	C/B								계
	100cm	110cm	120cm	130cm	140cm	150cm	160cm	170cm	
통과	37(17)	54(27)	56(28)	56(28)	62(31)	88(44)	92(46)	110(55)	555(32)
비통과	181(83)	146(73)	144(72)	144(72)	138(69)	112(56)	108(54)	90(45)	1063(100)
계	218(100)	200(100)	200(100)	200(100)	200(100)	200(100)	200(100)	200(100)	1618(100)
χ^2					46.9***				
의복 반응 거리	B/B								계
	100cm	110cm	120cm	130cm	140cm	150cm	160cm	170cm	
통과	5(5)	14(13)	11(11)	19(17)	20(18)	28(25)	20(19)	38(38)	155(19)
비통과	101(95)	90(87)	89(89)	85(83)	84(82)	82(75)	86(81)	62(62)	679(81)
계	106(100)	104(100)	100(100)	104(100)	104(100)	110(100)	106(100)	100(100)	834(100)
χ^2					44.37***				

***p < .001

〈표 9〉 거리변화에 따른 비통과율의 χ^2 -검증(여자/여자)

〔단위: 명(%)〕

의복 반응 거리	C/C								계
	100cm	110cm	120cm	130cm	140cm	150cm	160cm	170cm	
통과	19(17)	32(29)	41(36)	34(34)	39(39)	40(36)	56(54)	73(60)	334(43)
비통과	84(83)	79(71)	74(64)	65(66)	62(61)	70(64)	47(46)	48(40)	529(57)
계	103(100)	111(100)	115(100)	99(100)	101(100)	110(100)	103(100)	121(100)	863(100)
χ^2					54.56***				
의복 반응 거리	C/B								계
	100cm	110cm	120cm	130cm	140cm	150cm	160cm	170cm	
통과	36(15)	48(24)	61(29)	80(40)	72(36)	86(43)	86(43)	110(55)	579(36)
비통과	201(85)	152(76)	149(71)	120(60)	128(64)	114(57)	114(57)	90(45)	1068(64)
계	237(100)	200(100)	210(100)	200(100)	200(100)	200(100)	200(100)	200(100)	1647(100)
χ^2					48.31***				
의복 반응 거리	B/B								계
	100cm	110cm	120cm	130cm	140cm	150cm	160cm	170cm	
통과	28(23)	27(24)	22(22)	42(39)	32(32)	51(50)	49(46)	62(61)	313(37)
비통과	92(77)	86(76)	78(78)	67(61)	69(68)	51(50)	57(54)	40(39)	540(63)
계	120(100)	113(100)	100(100)	109(100)	101(100)	102(100)	106(100)	102(100)	853(100)
χ^2					58.11***				

***p < .001

거리변화가 여자/여자 쌍의 비통과율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C/C에서는 150cm까지 C/B와 B/B에서는 160cm까지 비통과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여자 쌍에서 C/C의 의복거리는 150cm이 하, C/B와 B/B의 의복거리는 160cm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두 사람 또는 한 사람이 Business Wear를 착용했을 때 피험자가 의복거리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10)의 남자/여자 쌍에서는 모든 의복에서 거리변화에 따른 비통과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거리변화가 남자/여자 쌍의 비통과율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C/C에서 160cm까지 비통과율이 높게 나타났고 C/B는 170cm에서는 비통과율이 높게 나타났다. B/B는 160cm에서만 비통과율이 낮았다.

따라서, 남자/여자 쌍의 C/C의 의복거리는 160cm이하, C/B와 B/B의 의복거리는 170cm이상의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성별조합보다 남자/여자 쌍에서 피험자들이 느끼는 의복거리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 衣服類型의 組合, 性別組合, 距離變化에 대한 3元變量分析

의복유형의 조합, 성별조합, 거리변화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독립변수에 대하여 3원변량분석을 하였다.

(표 11)에서 살펴보면 3원변량분석 결과 의복유형의 조합, 성별조합과 거리변화 모두 주효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는 의복유형의 조합과 성별조합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어떠한 성별조합이 어떠한 의복을 입고 있는가가 비통과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험자들은 성과 의복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다중분류분석의 Eta제수의 자승값을 비교하면 거리변화의 값이 가장 커졌으므로 통행인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데 거리가 가장 큰 단서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었다. 거리변화에서 다중분류분석의 평균값의 차를 비교하면 130cm와 140cm에서 비통과율이 차이가 나타나 두 사람간에 형성되는 대인거리는 대체로 130cm와 140cm사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거리변화에 따른 비통과율의 χ^2 -검증(남자/여자)

(단위 : 명(%))

의복 거리 반응		C/C								계
		100cm	110cm	120cm	130cm	140cm	150cm	160cm	170cm	
통과		28(24)	23(20)	37(33)	35(31)	34(28)	36(35)	71(47)	67(58)	331(35)
비통과		91(76)	93(80)	76(67)	78(69)	86(72)	66(65)	80(53)	49(42)	619(65)
계		119(100)	116(100)	113(100)	113(100)	120(100)	102(100)	151(100)	116(100)	950(100)
χ^2										48.06***
의복 거리 반응		C/B								계
		100cm	110cm	120cm	130cm	140cm	150cm	160cm	170cm	
통과		25(12)	38(19)	40(20)	64(32)	64(32)	82(41)	96(48)	86(43)	495(29)
비통과		183(88)	162(81)	160(80)	136(68)	136(68)	118(59)	104(52)	114(57)	1113(71)
계		208(100)	200(100)	200(100)	200(100)	200(100)	200(100)	200(100)	200(100)	1608(100)
χ^2										14.40***
의복 거리 반응		B/B								계
		100cm	110cm	120cm	130cm	140cm	150cm	160cm	170cm	
통과		4(5)	9(8)	18(20)	34(31)	51(48)	43(43)	51(51)	58(46)	268(30)
비통과		183(95)	102(92)	70(80)	76(69)	56(52)	57(57)	49(49)	68(54)	558(70)
계		84(100)	111(100)	88(100)	110(100)	107(100)	100(100)	100(100)	126(100)	826(100)
χ^2										127.93***

***p < .001

〈표 11〉 의복유형의 조합, 성별조합, 거리변화에 대한 3
원변량분석

변량원		평균자승합	F값
3 원 변 량 분 석	주효과	1063.667	23.541***
	의복	395.042	8.743***
	성	303.042	6.707**
	거리	1472.024	32.578***
분 석	상호작용효과	56.437	1.249
	의복 × 성	257.208	5.692**
	의복 × 거리	29.756	.659
	성 × 거리	25.756	.570
변량원		평균값의 차이	ETA값
다 중 분 류 분 식	의복	C/C C/B B/B	-3.71 -.63 4.33
	성	남/남 여/여 남/여	2.79 -4.00 -1.21
	거리	100cm 110cm 120cm 130cm 140cm 150cm 160cm 170cm	17.64 12.75 8.75 1.97 -2.14 -7.14 -12.14 -19.69
	Multiple R ²	.792	
	Multiple R	.890	

V. 結 論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의복유형의 조합에 따라 의복거리지각은 남자/남자쌍의 모든 거리에서 영향을 받았고 남자/여자쌍은 의복간 거리가 짧을 때 영향을 받았다. 남자/남자쌍과 남자/여자쌍의 의복거리는 정장을 입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인간의 거리를 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장을 입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성별조합에 따라 의복거리지각은 두 사람 모두 정장을 착용했을 때 영향을 받았다. 여자/여자쌍에 있어서 의복거리가 짧게 나타나므로 여자들이 대인간 거리를 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자들 보다 더욱 격식을 갖춘 정장을 입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거리의 변화에 따라서 의복거리지각은 모든 성별 조합에서 영향을 받았다.

4. 대인거리지각에서 가장 큰 단서로 작용하는 요인은 거리의 변화이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에 대해서 형성되는 물리적인 거리는 130cm와 140cm 사이임을 알 수 있었다. 대인거리지각에서 의복유형의 조합, 성별조합, 거리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므로 일상생활에서 적당한 대인거리 유지의 필요성을 느낄 때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마주 보고 서 있었던 쌍들의 연령이 20대의 대학생들이었고 의복의 유형이 정장과 평상복 이었으며, 거리변화 단계가 10cm씩 이었다. 그리고 실험장소가 쇼핑센터 였다는 점과 계절적으로 여름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험모델의 연령과 의복유형과 거리단계를 보다 다양화 시켜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의복의 영향력을 보다 포괄적으로 연구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Hall, E.T.(1984). 김지명 역. 숨겨진 차원. 정음사.
이수원 외(1988). 심리학-인간의 이해-. 정민사.
Robert Sommer.(1991) 이화희, 김정태 역. 개인의 공간. 지문당.
정양은(1982). 사회심리학, 법문사.
홍청청(1985). 한국 및 중국대학생의 대인거리양상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석사학위논문.

〈국외문헌〉

- Berscheid, E. & Walster, E.(1974). Physical Attractiveness. In L. Berkowitz(ED). Advance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157~215. New York : Academic Press. Po-

- well & Dabbs(1976). "Physical Attractiveness and Personal Spac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0, 59~64. 재인용.
- Bousaka, M.L. & Beatty P.A.(1978). "Clothing as a Symbol of Status : Its Effect on Control of Interaction Territory". *Bulletin of Psychonomic Society*. 11(4), 235~238.
- Dabbs, J.M.Jr & Stokes, N.A. III(1975). "Beauty is Power : The Use of Space on the Sidewalk". *Sociometry*. 38(4), 551~557.
- Dosey,M.A., & Meisels,M.(1969). "Personal Space and Self-Prot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2), 93~140.
- FortenberryJ.H., Maclean, J., Morris,P., & O'Connel, M.(1978). "Replications and Refinem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4, 139~140.
- Hilgard,E.R., Atkinson,R., & Atkinson, R.C.(1979). Introduction to Psychology(7th Ed), N.Y : Harcourt Brace Jovanovich, R.C. 고애란(1990).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 Lindskold, S. & Wayner, M. (1981). "Territorial Intrusions and Perceptual Distor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3, 298.
- Little, K.B., (1968). "Cultural Variations in Social Schemat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1~7.
- Milgram,S., & Toch,H.(1969). Collective Behavior : Crowd's and Social Movements. In G. Lindzey & E.Arson(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2nd ed). 4. Reading, Mass : Addison-Wesley. 507~610.
- Powell, P.H., & Dabbs, J.M.Jr.(1976). "Physical Attractiveness and Personal Spac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0, 59~64.
- Young, A.E., & Guile, M.N.(1987). "Departure latency to Personal Space : Effects of Status and Sex".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4, 700~702.